산업통상부 | 보도자료 |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1. 4.(화) 06:00 < 11. 4.(화) 석간 > 배포 2025. 11. 3.(월)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한미 간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회장 방한 계기 면담
- 한미 간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비자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4(화) 서울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Thomas Byrne) 회장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포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운영 해오고 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이 대규모 대미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LNG와 원유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및 농업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교역·투자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8월 우리 기업이 발표한 1,500억불 직접투자 계획과 지난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합의(10.29)에 따른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가 이행된다면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여 본부장은 번 회장에게 최근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단속 및 구금 관련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안정적 투자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강지민 (044-203-56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